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김 영 희**

국문초록

칠성풀이는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일곱 아들이 칠성신의 신성을 획득하기까지, 일곱 아들의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를 서술한 한국의 무속신화이다.

옥녀부인과 칠성님 사이에서 비범하게 탄생한 일곱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 받는다. 일곱 아들은 특별한 성장 과정을 통해 고통, 죽음, 재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여 어머니를 살려내고 신성한 지위를 획득한다.

일곱 아들이 칠성신이 된 과정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영웅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개성화과정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성신이 된 일곱 아들의 이러한 개성화과정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있는 자기원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원형은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치유자의 어떤 신적인 상의 원형을 일곱 개의 칠성신에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 : 칠성풀이 · 칠성신 · 개성화과정 · 자기원형.

들어가는 말

밤하늘에 은빛 가루를 뿌려 놓은 듯 한 아련하게 보이던 은하수, 빛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별뿔별들! 그리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맑고 고운 마음으로 소원을 기도했던 나!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에 대한

접수일 : 2015년 9월 7일 / 심사완료 : 2015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26일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다.

밤하늘에는 별들을 연결시켜주는 선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는 심상에 따라서 별자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별들은 무병장수나 재액초복을 기원하는 주요 상징이었으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들 중에는 별자리와 관계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¹⁾

옛날,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중에서도 북극성 주변에 국자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일곱 개의 별,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정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별들에게 투사했을까?

태초부터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경외하면서, 그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고조선시대의 무덤인 고인돌 뚜껑위에 북두칠성을 그려 넣었고, 고구려 고려 고분벽화, 조선시대에 와서는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칠성판이 등장하였으며, 민간의 칠성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가에는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이라 하여 칠성이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이것을 28수(宿)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칠성은 북두칠성을 말한다. 또 장소마다 칠성을 붙여 칠성신의 종류는 많은데, 이것은 여러 칠성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인 칠성신은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

융에 의하면 태초로부터 인류가 겪고 지나온 모든 체험은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각되고 하나의 원초적 행동조건으로 침전된다고 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상(image)들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들로서 개인의 생활사를 넘어선 인류의 오랜 체험 세계를 만나게 되며, 그 세계에 내포되어 있는 신화적 요소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원형이 신화적 모티브 인 것이다. 신화에서 영웅, 구출자 혹은 영웅을 잡아먹으려는 괴물들은 모두 원형상이다.³⁾

폰 프란츠는 “원형상은 사고 유형(thought pattern)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 체험이다. 그것이 오직 그 개인에게 감정과 느낌의 가치를 지닐 때라야만 원

1) 김일권(1999) : “도불의 점성 사상과 점복신앙”, 《한국민속학보》, 10 : p22.

2) 조성제(2005) : 《무속에 살아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서울, p119.

3) 이유경(2008) :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p93.

형은 살아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

또한 폰 프란츠는 “신화의 심리학적 해석은 신화가 무엇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를 심리학적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 신화를 심리학적인 형태로 현대화 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해석이 만족할만한 것인가, 그것이 나나 다른 사람에게 맞는가 하는 것이며, 나의 꿈이 그 해석에 동의하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⁵⁾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나의 무의식을 살피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써 믿고 있는 칠성신을 모시는 무속 신화인 “칠성풀이”의 상징적의미를 만나고자 한다.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내용⁶⁾

옛날에 공자님도 이구산에 빌어서 낳고, 맹자님도 이구산에 빌어서 낳고, 효자 유충렬도 남악산에 빌어서 낳고, 어사인 이도령도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여 낳아서 전라도 어사를 하였다고 한다. 천하궁에 칠성님이 살았는데 열일 굶이었고 지하궁의 옥녀부인은 열여섯이었다. 옥녀부인이 한 번은 칠성님께 청혼을 하였는데 칠성님이 전혀 무관심하였다. 두 번, 세 번을 청혼하니 이것도 연분이라 생각하여 허락을 하였다.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고 백일을 하여 칠성님이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호사롭게 차려입고 오른쪽에는 큰 양산을 세

4)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nmbhara Publications, Inc, Boulder, p10.

5) 이부영(2011) : 《한국 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55.

6) 서대석(2004) :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p269-276.

한국의 신화는 문헌에 기록으로 전하는 건국신화와 무속제전에서 구전되는 무속신화로 대별된다. 이들 신화는 본래 한민족의 신화로서 고대로부터 같은 뿌리에 염원을 두고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우리민족의 신성관념과 세계관 및 사회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서대석, 2002,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칠성풀이」는 관북, 관서, 호남, 제주도 등지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이다. 여기에서는 임석재(任奭宰) 선생이 조사하여 출판무악(菑浦巫樂)에 수록한 호남지역본을 이야기의 줄거리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최내옥(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라북도 남원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476-479에 실린 “복두칠성의 유래”는 일반사람이 무당굿 할 때 들은 것을 이야기 한 것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에서 요약된 전문을 제시한 것은 독자들이 “칠성풀이”를 전체적으로 읽음으로써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 감정이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고, 왼쪽에는 큰 장대를 세우고 무지개를 다리 놓아서 호기 있게 신부집으로 행차하였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주참청(駐站廳)에 잠시 머물다가 대례청을 바라보니 대례청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병풍을 좌우에 둘러쳐 놓았고, 차일(遮日)을 쳐놓고, 온갖 화초를 꽃아놓고, 암탉과 장닭을 잡아서 쌍을 맞추어 상을 차려놓았다. 신부 역시 호사롭게 차려입고 있었다. 칠성님이 대례청에 도착하여 인연주(因緣酒)를 부어놓고 합환주(合歡酒)를 마신 후에 잘 꾸며 놓은 방안으로 들어가서 옥녀 부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칠성님이 옥녀부인에게 하는 말이 “부인, 다른 사람은 내 나이에 아들 낳고 딸 낳아서 잘 기르는데 우리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우리도 공을 들여서 자손을 낳아 봅시다.” 하였다. 이에 부부가 부처님께 시주하고, 후원에 칠성당을 만들어 놓고 석 달 열흘 동안 지성으로 공을 들였다. 그리고 나니 하루는 밤에 상서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발 아래로 별이 일곱 개가 떨어져서, 그것을 치마 앞에 놓고 보려고 하니 꿈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달 보름부터 태기가 있었고 열 달을 다 채운 후에 출산의 기미가 있었다. 삼신할머니께 순산하기를 정성스럽게 빌고 난 다음 얼음에 배 밑 듯이 애기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다. 아이가 나온 후에 태(胎)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기가 또 나왔다. 역시 아들이었다. 역시 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애기가 나왔다. 또 아들이었다.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기를 계속해서 낳았다.

“여봐라, 하인아, 칠성님께 자손 다 낳았다고 여쭙어라.” 하는 말을 밖에서 칠성님이 듣고는 “아들을 낳았느냐?” 하고 물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답했다. 칠성님이 좋아하며 사주를 적어 보려고 숯과 종이를 들고 산모의 방 안으로 바빠 들어와서 보니 산모까지 여덟 명이 웅기중기 누워 있었다. 칠성님이 이를 보고 뒤로 물러서며 하는 말이 “아이고, 옥녀부인, 미물 짐승도 새끼는 둘도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한 텃줄 안에서 일곱 자손을 낳으니 이게 웬 말이요? 나는 저 자손을 젖 없어서 못 키우겠고, 밥 없어서 못 키우겠소.” 하였다. 칠성님은 그 자리에서 소박을 주고 천하궁에 올라가서 후실 장가를 가버렸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이별하고 아버지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옥녀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의 밥이나 되라고 바다에다 아이들을 내다버릴 생각으로 영청수로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면서 자기

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옥녀부인, 그 자손은 하늘이 보내서 낳은 자손입니다. 물에 넣어도 죽지 않고, 불에 넣어도 죽지 않고, 저절로 클 자손입니다. 여기다가 내던지면 당신은 앓은뱅이가 될 것이니 어서 빨리 돌아가서 밤에는 죽을 쑤어 세 손가락씩만 먹이고 낮에는 일곱 번씩만 젓을 먹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날 자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옥녀부인이 발길을 되돌려 집으로 돌아와서 청사 이불에 검은 모래로 베개를 만들어 이리저리 뉘여 놓고 밤이면 죽을 쑤어 세 손가락을 주고 낮이면 다른 사람에게 젓을 동냥하여 일곱 번을 먹이니 아이들이 저절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그러저럭 십오년이 흘러서 아이들이 모두 열 다섯 살이 되었다. 하루는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어머니께 말하기를 “어머니, 우리가 글공부를 아니 하면 상놈이 되기 쉽습니다. 글공부나 시켜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옥녀부인이 아이들을 서당에 입학시켜서 글공부를 시켰다.

어느 해 봄이 되었는데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산수구경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서당 아이가 일곱 아이들에게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놀려댔다. 일곱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고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무덤이라도 알려주시고, 살아 계시면 간 곳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여봐라, 일곱 아기가야. 이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속이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한 배에 칠형제 낳았다고 어이없고 무섭다고 천하궁으로 올라가셔서 후실 장가를 가셨단다.” 하였다. 아이들이 “어머니, 저희들은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바지도 일곱 개, 옷도 일곱 개를 준비하고 버선과 신발도 일곱 개를 마련하여 주니 아이들이 떠났다. 점점 멀어져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남편 잃고 자손마저 잃은 옥녀부인이 기가 막혀 통곡을 하였다.

일곱 아이들은 천하궁에 올라가서 “여보시오, 지하궁으로 장가를 가셨다가 천하궁에 다시 와서 후실 장가를 가신 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저기 청기와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일곱 형제가 청기와 집에 당도하여 문전에서 바라보니, 네 귀에 풍경을 달아서 바람이 살짝 불면 쟁그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길한 터에 지은 큰 집에서 칠성님이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 “아버지 문안드립니다.” 하고 일곱 형제가 인사를 하니, 칠성님이 듣고는 “날아가는 새도 못 날아들고, 기는 벌레도 못 기어 들어오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너

희들이 찾아왔느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 같으면 들어서고 잡귀 같으면 물러가라.” 하였다. 일곱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문안드립니다. 저희 일곱 형제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도 이렇게 장성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내 자손들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며 칠성님이 기쁘게 맞아주었다.

하루는 일곱 아기를 일일이 앉혀놓고 계모가 하는 말이 “독서당을 차려 줄까? 글공부를 시켜줄까? 진사급제를 시켜줄까? 내가 난 자손이라도 너희들보다 더 예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어머니. 독서당을 차려주십시오.” 독서당을 차려놓고 칠성님이 일곱 아기의 글공부를 시키는데 글공부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칠성님은 글공부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계모가 적적하고 한심하여 하루는 혼자 생각하기를 “전실 자손 때문에 살림이 모두 거덜 나고 남편과의 인연도 끊어지겠구나. 이 자손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하였다. 계모는 드디어는 울화병이 나서 밤낮으로 앓게 되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전실이 앓고 있다면 점이라도 쳐서 살림 테지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본체만체 하는구나. 후실은 쓸데없구나.” 사랑에 있던 칠성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와서 “여보시오 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약방에도 사람을 보내보고 점도 쳐서 고쳐봅시다.” 하였다.

칠성님이 점을 보러 가기 위해서 복채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모가 지름길로 점쟁이에게 찾아갔다. “여봐라, 점쟁이. 거기에 있느냐?” “거기 누가 나를 찾소?” “내가 왔노라.” 점쟁이가 문을 열고 계모를 맞아들어 앉혀놓고,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하고 물었다. 계모가 하는 말이 “칠성님이 점을 보러 오시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경(經)을 읽어도 소용없고, 굿을 하여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 하여라. 동쪽 인간 일곱이 들어와서 병이 났으니 일곱 애기의 창자를 먹여야 병이 낫는다고만 하여 두어라.” 하였다. 이 말을 듣더니 문복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그 점 못 치겠소. 일곱 목숨을 죽여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였다. “노비 전담 나누어 가지세. 내 살림을 자네를 주겠네.” 계모가 이렇게 말하고서 머리에 찌르고 있던 봉황 비녀와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 옥반지를 빼어 주었다.

계모가 나간 후에 칠성님이 도착하였다. 경황없이 들어오더니만 “점쟁이 거기에 있느냐?” 하였다. “거기 누가 나를 찾소?” 하니 “나의 부인이 병이 나서 점

을 치러 왔노라.”고 답하였다. 문복쟁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칠성님을 영접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점쟁이가 점상을 놓고 산통(算筒)을 굴려서 점을 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점은 못 하겠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칠성님이 “점이 나오는 대로 말해주소.” 하였다. 점쟁이가 산통을 다시 굴려서 점을 보더니 “아이고 동쪽 인간 일곱이 들어와서 병이 났습니다. 경을 읽어도 소용없고 굿을 해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일곱 애기의 창자를 삭혀서 먹이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자손들은 이름만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죽으면 다시 한 뿔줄에서 삼정승할 삼형제가 태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칠성님이 점쟁이의 집을 나오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거나. 신선 같은 나의 자손 일곱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서럽게 통곡을 하였다.

이때, 일곱 애기들은 하루 공부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날이 저물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자,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으니 우리 일곱 형제가 배웅을 나가자.” 하고 이리저리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한 곳에 도착하니 아버지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동생들아, 아버지가 우신다. 어서 빨리 가보자.” 하고서 소리 나는 데를 찾아 가보니 칠성님이 낮을 잃고 울고 있었다. “아버님, 어서 집으로 가지지요.” 칠성님이 일곱 애기를 앞세우고 집으로 가는데, 일곱 애기가 물었다. “아버지, 점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던가요?” “일곱 애기야, 너의 어머니가 죽는다고 했다면 어찌 내가 원통하리…….” 하면서 점괘 이야기를 다 해 주었다. 일곱 애기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아버지, 부모님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지만 자손은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창자를 잡수게 하여 어머니를 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지지요.”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모퉁이를 지나자 사슴이 갑자기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칠성님이 하는 말이 “여봐라, 사슴아. 대장부가 큰일을 보러 가는데 길을 막지 말고 아래로 비켜 서거라.” 하였다. 그래도 사슴이 꺾이지 서서 가는길을 막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칠성님. 저 자손을 낳으려고 온갖 공을 다 드렸는데 이제 와서 죽인다니 웬 말입니까? 저 자손들을 낳아 놓으니, 칠성님이 그 자리에서 소박을 주고 천하궁으로 올라가 후실 장가를 가 버렸고, 일곱 자손들도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떠나간 후에 나는 남편 잃고 자손마저도 잃고 혈혈단신 외로이 살다가 내 자손들 살리려고 이렇게 산중의 사슴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사슴이 일

곱 애기를 불러서 뒤로 물러나라 하니 일곱 애기가 갑자기 간 곳 없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슴이 창자 일곱 개를 내어서 주면서 “앞문으로 이 창자를 들여 넣고 계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뒷문으로 엿보십시오.” 하였다. 칠성님이 창자 일곱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와서 앞문으로 들여 넣고 뒷문으로 가서 엿보니, 계모가 일곱 창자를 손에 들고 살짝 입술에다 문힌 후에 헛간에다가 버리면서 하는 말이 “일곱 애기 너희들은 불쌍하다. 만약 일곱 애기를 내가 낳게 되면 그때는 잘 먹이고 잘 입히리라.” 하였다.

육일이 지난 후에 계모는 병이 다 나았다. “나의 목숨을 살리려고 일곱 목숨이 죽었으니 일곱 애기 씻김굿이나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온갖 음식을 장만해서 씻김 잔치를 하였다. 이때 한 나무꾼이 지계를 지고 산중으로 가다가 혼자서 하는 말이 “일곱 애기 불쌍하다. 이제 죽어서 이 산중에 묻혔구나. 너희 집에서 너희들의 어머니가 병이 다 나아서 씻김 잔치를 한단다. 냇이라도 어서 가져라.” 하였다. 일곱 애기가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어머니가 나오셨단다. 우리 어서 어머니를 뵈러 가자” 하고서 허둥지둥 집으로 향하였다.

일곱 형제가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들어서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왔다.” 하니 문간의 하인이 이를 보고 놀라며 주문(呪文)을 외웠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들어오라.” 일곱 애기가 대문을 들어서서 “어머니 아버지 문안드립니다.” 하니 “이미 죽은 자식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너희 같은 자손이 없다.” 하였다. “여봐라, 일곱 애기야. 너희들이 귀신이야, 사람이냐?” “사람이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니 “너희가 나의 자식이라면 나가서 큰 나막신을 신고 흔적 없이 집으로 들어와 보라.” 하였다. 일곱 애기가 나가서 큰 나막신을 신고 흔적 없이 집으로 들어서자 “아이고, 너희들은 귀신이다. 귀신이 해를 끼치려고 한다.” 하였다. “아버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모아 확인해 보시지요.”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쟁반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손을 베어서 피를 떨어뜨렸다. 칠성님의 피는 빠가 되고 일곱 애기의 피는 살이 되어서 엉기면서 모여들었다. 이때, 계모가 나오더니 “나도 해보겠다.” 하면서 손을 베어 피를 떨어뜨리니 물 위의 기름과 같이 둥실 떠 있었다. 그제야 칠성님이 달려들어 일곱 애기의 목을 안으면서 “아이고, 나의 자손들아. 갑자기 간 곳 없이 사라져서 귀신이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계모를 바라보면서 “요망하고 방자한 저 녀를 당장 밖으로 내어놓고 활로

쏘아 죽여라.” 하였다. 일곱 애기가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활로 쏘아 죽이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칠성님이 달려들어 이리저리 엎어 치니, 계모가 살모사가 되었다가 개구리로 되었다가 두더지로 되었다. “천상에서 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를 보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늘을 볼 수 없게 두더지나 되어라.” 하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칠성님이 “여봐라 일곱 애기들아. 너희들의 친어머니를 찾아가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혈혈단신 외롭게 지내는 너희 친어머니를 찾아가자.” 하고는 지하로 내려와서 옛 살던 집을 바라보니 앞 벽은 헐어져 있고 뒷벽을 무너져 있고 마당은 쭉대밭이 되어 있었다. 지나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에서 살던 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 잃고 자손 잃고 서럽게 울다가 이 연못에 빠진 지가 석 달 열흘이 되었습니다.” 일곱 애기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르면서 연못 안으로 들어갔다. 연못물도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점점 말라 갔다. 어머니를 다시 부르니 연못물이 한층 더 말라 갔고 세 번째 어머니를 부르니 연못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연못의 청지기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물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지하로 장가를 들었다가 저희 칠형제 낳으시고 천하궁으로 올라가셔서 후실 장가를 가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그제야 들어오라고 하였다.

일곱 애기가 꽃을 손에 들고 가서 어머니의 시체에 꽃으니 뼈가 돌아나고 살이 돌아나고 숨이 다시 되살아났다. “아이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한이 되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아. 너희들은 하늘이 낸 효자들이다. 너희 칠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구나.” 하였다. 그리고 연못 밖으로 나와서 천하궁으로 올라갔다.

칠성님이 일곱 애기를 불러 앉히고 “여봐라, 일곱 애기야 너희들은 무엇이 소원이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살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 사시게 되었으니 이제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칠성으로 가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칠성님이 “북두칠성에 가거라. 남두칠성에 가거라. 서두칠성에 가거라. 동두칠성에 가거라.” 하여 칠성을 보내놓고 칠성님과 옥녀부인은 견우성과 직녀성이 되었다.

유 화

“칠성풀이”는 칠성신에 대한 무속신화이다. 무속신화는 고대 무속제전에서 형성된 이후 전승되면서 생성, 소멸을 거듭해왔다.⁷⁾

북두칠성을 신체로 하는 칠성신을 모시는 곳거리인 칠성굿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곳이 아니라 큰 굿의 한 제차로 행해지며, 전국적으로 두루 전승된다. 전라북도와 충청이남 지역의 굿판에서는 “칠성풀이”라는 서사무가로 구연된다.⁸⁾

그런데 “칠성풀이”는 지역에 따라서 무가(巫歌)의 명칭이 다르지만, -관북지방에서는 “살풀이”, 관서지방은 “성신굿”, 호남지역은 “칠성풀이”, 제주도에서는 “문전본풀이” 등-모두 동일한 서사유형에 속하는 무속신화들이다. 지역에 따라 무가의 명칭이 다른 까닭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무속제전에서 가지는 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⁹⁾

서대석(2002)은 “칠성풀이”의 자료를 전승지역별로 정리하였다(표 1).

“칠성풀이”는 함경도에서는 살(煞)을 주는 신의 유래담으로, 전라도에서는 칠성신의 유래담으로,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문신(門神)의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신화의 기능이 혼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무속신화의 특징이기도 하다.¹⁰⁾

또한 서대석(2002)은 관북지방, 관서지방, 호남지역, 제주도 지역의 전승본을 정리하여, 계열신화의 공통소를 중심으로 그 신화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각 편의 서사단락을 단락소로 정리하여 대비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칠성풀이”의 공통점은 전처소생의 일곱 아들이 부친에게 버림을 받고, 부친을 만난 후, 계모의 음모를 받아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 계모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계모를 응징하고 위기를 모면해 칠성신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외국의 유화를 살펴보면 무속신화 “칠성풀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

7) 서대석(2002)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pp9-11.

8) 김만태(2007) : “부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의 조형성 연구”, 《한국무속학》, 115 : p213.

9) 김열규(외)(1998) : 《한국의 무속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서울, p113.

10) 서대석(2002) : 앞의 책, p323.

은 찾기는 어려웠다. 단지 중국의 설화에서 「수신기」(20권본) 권3 및 돈황본(敦煌本) 「수신기」에 실려 있는 생사를 주관하는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¹¹⁾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별인 남두성과 북두성이 19세에 단명한 한 소년의 수명을 늘려 90세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그 이외에 몽골의 설화 “북두칠성이 생겨난 이야기”¹²⁾에서는 두형제가 사냥을 하며 길을 가던 중에, 신이한 능력을 지닌 5명의 사람-활쏘는 사람, 하늘과 땅의 노래를 듣는 사람, 산을 들어 옮기는 사람, 빠르게 영양을 잡는 사람, 바닷물을 뭇땅 마시는 사람- 과 의형제를 맺는다. 그리고 바다 저편에 사는 샤희개왕의 계책에서 살아나 일곱 신(북두칠성)이 되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알타이 설화 “일곱 형제와 북두칠성”¹³⁾은 사람들이 아직 알타이 땅에 살기 시작 전에 일곱 그루의 떡갈나무처럼 보이는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들은 막내 동생을 올케르 대왕의 딸인 알튼솔로니와 결혼시키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올케르 대왕의 과제를 수행하고 알튼솔로니와 함께 땅에 내려와 살지만 올케르 대왕의 무자비한 복수로 인해 알타이 땅에서 살 수 없자 하늘나라의 북두칠성 별자리가 된 이야기이다.

러시아 민담 “일곱 개의 별”¹⁴⁾은 중병에 걸린 어머니와 살던 한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을 드리기 위해 나무국자를 가지고 물을 찾으러 나선다. 지친 소녀는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나무국자에는 물이 가득하였다. 줄지 않는 국자의 물로 개, 어머니, 노인에게 물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 국자 물에서 일곱 개의 다리아몬드가 튀어나와 하늘에 일곱 개의 별이 된 내용이다.

외국유화와 무속신화 “칠성풀이”를 비교해 보면, 외국 유화들에서는 북두칠성이 되는 과정이 주인공들이 시련, 고통을 극복하거나 자비를 베풀으로써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무속신화인 “칠성풀이”는 이들 유화와는 달리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일곱 아들이 칠성신의 신성을 획득하기까지 시련, 고통, 죽음, 재생의 자기실현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1) 박광순(역)(2000) : 《신비의 나라, 중국의 신화와 전설》, 넥서스, 서울, pp59-62.

12) 이안나(역)(2007) :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서울, pp56-64.

13) 양민중(역)(2003) : 《알타이 이야기》, 정신세계사, 서울, pp166-182.

14) 조봉제(1975) : 《세계의 민담》, 아카데미, 서울, pp151-155.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별은 신의 존재, 지고(至高)한 존재, 영원한 것, 죽지 않은 자, 최고의 위업, 신의 사자인 천사, 어둠속에 빛나는 희망, 밤의 눈을 상징하며,¹⁵⁾ 별은 형성과정중에 있는 세계, 우주 원래의 중심¹⁶⁾이라고 한다. 용에 의하면, 인류는 별에서 인류의 무의식의 지배적 특성을, 즉 신들을 발견한다고 한다.¹⁷⁾

우리 민족이 신성시 했던 일곱 개의 별, 북두칠성! 칠성풀이는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일곱 아들이 신이 된 이야기이다.

1. 천하궁의 칠성님과 지하궁의 옥녀부인의 혼인

일곱 아들의 부모가 된 천하궁의 칠성님과 지하궁의 옥녀부인이 결혼을 하였다. 칠성님은 무지개를 다리 놓아 호기 있게 신부 집으로 행차한 천상적인 존재이며, 옥녀부인은 지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신화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하여 인류의 기원을 말한다.¹⁸⁾

결혼은 대립물의 화해, 상호작용, 합일이자 신과 지상세계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신과 여신, 신관과 무녀, 왕과 여왕의 성혼(聖婚)은 하늘과 땅의 신비한 결합이다. 특히 연금술에서 결혼이란 융합, 즉 유황과 수은, 태양과 달, 황금과 불, 왕과 여왕 등의 합일을 의미한다.¹⁹⁾ 즉, 융합은 한편으로는 화학적 결합의 알 수 없는 비밀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소로서 대극합일의 원형을 표현하여 그로서 신비적 융합의 상(像)이 되었던 것이다.²⁰⁾

신성혼(Hiēros gamos) 속에서 최고의 대극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형상을 통해 (중국의 음양과 같이), 더 이상 어떠한 대극도 없으며 그럼으로써 부패할 수 없는 합일체로 융해된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형상이 비인

15) 이윤기(역)(2000)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 서울, p330.

16) Chevalier J, Gheerbrant A(1994)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929.

17)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37.

18) 서대석(2002) : 앞의 책, pp323-365.

19) 이윤기(역) : 앞의 책, p210.

20)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73.

격적인 객관적 형태로 머물러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²¹⁾ 중국에서 음양(陰陽)의 개념은 우주, 곧 만물을 유지하는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다. 이것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음은 소극적인 것, 여성, 어둠, 땅이며, 양은 적극적인 것, 남성, 광명, 하늘이다.²²⁾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경우에도 그 결합은 음양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즉 음양이 화합을 함으로써, 그 둘에서 다시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신화에서 신성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인공 부모의 신성혼이며, 또 하나는 자신의 신성혼이다. 전자는 주인공의 출신 내력을 밝히는 것으로 부모의 신격이 강조되며, 그 결과 주인공의 신성과 능력이 보장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단군과 주몽이다.²³⁾

이와 같이 천상적 존재인 칠성님과 지상적 존재인 옥녀부인의 결합, 신비적 결혼은 신화소로서 대극합일의 원형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신성혼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으로 일곱 아들, 영웅이 탄생 할 조건이 형성 된 것이다.

2. 혼인 후 10년간 아이가 없음 그리고 일곱 아들의 탄생

칠성님과 옥녀부인은 혼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자식이 없었다. 칠성님과 옥녀부인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 시주하고, 칠성당에 기자정성을 드리게 된다. 기자(祈子)정성은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행위로서 우리 민족은 가계를 이어갈 아들을 희구하는 기자속과 기자신앙²⁴⁾이 강했다. 한국의

21)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p52.

22) 아서 코트렐(도서출판 까치 편집부 역)(2002) : 《그림으로 보는 세계 신화 사전》, 까치, 서울, p171.

23) 김영일(2005) : 《한국 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 출판사, 서울, p298.

24) 김용덕(2004) : 《한국 민속 문화 대사전 상권》, 도서출판 창솔, 서울, pp275-276.

*기자에 대한 신앙은 치성기자(致誠祈子), 주술기자(呪術祈子), 주물기자(呪物祈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치성기자 : 어떤 대상에게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산에 가서 비는 산치성, 부처님께 비는 불공치성, 집안에서 산신에게 비는 가내치성이 있다.
- 주술기자 : 주술의 힘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어떤 특수한 사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다.
- 주물기자 : 아들을 못 낳는 아낙네들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니고 다닌 풍습.

기자신앙 및 습속은 부권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한 선사시대부터 있었다. 단군 신화의 경우 곰이 웅녀로 변신하여 사람이 된 이후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사람으로 변신한 환웅과 신성혼을 함으로써 건국의 신화적 인물인 단군이 탄생된 것이다. 칠성님과 옥녀부인 역시 정성을 들여 기도한 결과 일곱 아들이 태어났다.

폰 프란츠는 영웅아이(hero child)가 태어나기 전에는 흔히 임신을 못한다든지, 아이를 갖기 어려운 기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침체되고, 공허하고, 아무도 되지 않는 기간이 당분간 지속되는데 이런 기간이 지속 될수록 더욱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무의식속에 쌓이게 된다.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⁵⁾

옥녀부인은 일곱 아들이 태어나기 전, 밭 아래로 별이 일곱 개가 떨어져서, 그것을 치마 앞에 놓고 보는 상서로운 태몽을 꾸다. 이 꿈은 범상치 않은 일곱 쌍둥이를 출산하리라는 예지 몽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성함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일곱은 신비적 쌍둥이의 숫자이다.²⁶⁾ 오세아니아에서는 별은 어머니인 태양과 아버지인 달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한다.²⁷⁾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별에 관한 꿈은 하늘이 위대한 인물을 점지해 줄 때에 꾸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장율사는 그의 어머니가 꿈에 별이 떨어져 품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했으며,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 등에 일곱 개의 별무늬가 있었던 김유신은 그의 아버지가 화성과 토성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고 한다.²⁸⁾ 이렇게 신화적이고 경이로운, 인간적이지 않은 어린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며, 성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속·민간신앙에 나타난 어린이상 중의 특징 중에서, 어린이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신격으로서 인간의 죽음을 차압(差押)하고, 혼을 저승에 천도하는 영혼의 인도자 이고, 풍요와 생산의 주술적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는 약한 존재이므로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으로

25)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심상영 역)(2007) : 《융심리학과 고양이》,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p48-51.

26) Chevalier J, Gheerbrant A(1994) : 앞의 책, p865.

27) 이윤기(역)(2000) : 앞의 책, p332.

2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2》, 동아출판사, 서울, p343.

부터의 분리가 필요한데, 한국 민속에서는 상징적인 버림을 통해, 즉 액 막음을 통해 어린이의 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많은 신화 속의 영웅들이 겪는 전체성으로 향한 출발로 볼 수 있다.²⁹⁾ 융(2003)에 의하면 어린이상은 대극을 융합하는 상징, 하나의 중재자, 구제자 즉 전체성의 실현자라고 하였다.³⁰⁾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신성한 결합으로 일곱 아들은 새로운 인격, 칠성신으로 변환되었다. 이 새로운 인격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제3의 인격이 아니고 둘 다인 것이다. 또한 그 인격은 의식을 초월하므로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 자기(Self)라고 불러야 한다. 융(2004)에 의하면 자기는 자아이면서 비-자아, 주관적이면서 객관적, 개별적이면서 집단적이다. 그것은 전체성 대극합일의 화신으로서 융합의 상징이라 하였다.³¹⁾ 새로운 인격인 칠성신은, 즉 의식을 초월한 존재, 자기(Self)의 상징인 것으로 보인다.

3. 부친에 의해 버림받음

천상적 존재인 칠성님과 지상적 존재인 옥녀부인의 신성혼에 의해 비범한 출생을 한 일곱 아들들은,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는다. 칠성님은 “사람이 한 텃 줄 안에서 일곱 자손을 낳으니 이게 웬 말이요? 나는 저 자손 짓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못 키우겠소.”라는 무책임한 이유로 옥녀부인과 일곱 아들을 비정하게 버린다.

칠성님의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신성혼 이후, 아버지의 존재가 떠나버리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제석본풀이와도 동일하다.

칠성님이 옥녀부인과 일곱 아들에 대한 소박, 혐오, 비정함의 감정적 차원이 우선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³²⁾ 옥녀부인은 칠성님의 아내가 아니라, 에로스이다. 칠성님과 옥녀부인 사이에는 진정한 에로스가 없다. 에로스는 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내면적인 기능으로,³³⁾ 감정

29) 이도희, 이부영(1993) :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심성연구》, 8(1,2) : pp9-10.

30)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253.

31)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87.

32) 홍나래(1997)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33)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심상영 역)(2007) : 앞의 책, p128.

에 의해 신비로운 존재에 의해 뺏겨져야 한다. 용은 에로스를 “뺏어짐(관계 지어짐)”이라고 하였다.³⁴⁾ 에로스의 결핍은 싸움과 이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이별은 일곱 아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조건인 것이다.

Jung(2003)에 의하면³⁵⁾ 어린이는 ‘신의 측면’, ‘어린 영웅의 측면’을 갖는데, 두 가지 유형은 모두 비범하게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고 박해자들에게 의해 위협에 처한다고 한다. 이러한 버림받음, 내버림, 위협한 노출 등은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출발점의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에 가득 찬 경이로운 출생에 속한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으며, 버림받음은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조건이라 하였다.

버림받음의 고통과 방향은 원시사회의 성인예레(initiation)의 3단계, 고통, 죽음, 재생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다. 버림받음의 고통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고, ‘새로워짐’ 즉 자기실현, 인격의 변환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³⁶⁾

일곱 아들의 비범한 탄생, 신성한 혈통을 물려 준 후 아들을 버리는 칠성님!

칠성님은 일곱 아들에게서 보배로운 존재, 영웅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버려진 모퉁이의 돌이 각진돌 lapis angularis=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과 같다.³⁷⁾ 그들이 같고 닮아서 보배가 되어 많다고 버린 일곱 아들이 하나, 전체가 된다는 것을 몰라본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다시 말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개성화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버려진 일곱 아들이 시련을 겪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새롭게 탄생해야 할 출발점을 칠성님이 만들어 준 것이다.

4. 일곱 아들이 부친을 만나기 위해 천하공으로 가서 부친을 만남

칠성님으로부터 소박을 받은 옥녀부인은 일곱 아들을 바다에다 내다버리려

34) 마리안스 슈스(염음)(한오수 역)(2007) : 《사랑에 대하여》, 솔 출판사, 서울, p39.

35)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p254-257.

36)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서울, pp104-105.

37)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63.

하지만 초월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일곱 아들이 하늘이 보내서 낳은 자손임을 깨우쳐 준다. 옥녀부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일곱 아들을 양육하게 된다. 이렇게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아 신비하게 탄생한 일곱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없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버지는 신분의 근원을 말해주며 아들의 존재를 통해, 조상들의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게 된다.³⁸⁾ 시베리아의 사모예드인과 오스티야크인 사이에서는, 샤먼이 죽으면 그 아들이 나무를 아버지의 모양으로 깎는다. 그는 이 상징물을 통해 아버지 샤먼의 능력을 물려받는다.³⁹⁾ 즉, 부성상은 어린아이가 외부세계로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힘으로 정신적 에너지이다.⁴⁰⁾ 이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 아들의 성장에 장애를 주게 된다. 아버지는 태양, 영, 남성원리이자 여성적이고 직관적 본능의 힘에 대립하는 것이며, 법과 질서의 체계적인 힘인 것이다.⁴¹⁾

많은 신화에서 아버지가 부재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천지왕 본풀이에서, 아버지는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천지의 혼돈을 정리하고 이승과 저승을 분리, 통치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전에 총맹부인에게 그들을 잉태만 시켜 놓고 하늘로 가 버렸다. 동명왕 신화에서도 해모수는 유화에게 주몽을 잉태만 시켜 놓고 떠난다. 제석 본풀이 또한 도승이 당금애기에게 아이를 잉태시키고 칠베 장삼과 박씨를 하나를 주고 떠난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갖은 서러움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어머니를 끈질기게 조른 끝에 단서를 얻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⁴²⁾

일곱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천상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일곱 아들이 천상적 존재인 칠성님의 혈통이며 내재적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용(2005)은 아버지-이마고는 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관계를 대체

38) 강철중(2008) : “한국 민담 ‘바늘상자 속에 넣어둔 눈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23(1) : p27.

3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앞의 책, p476.

40) 김정택(2006) : “백두산 민담 ‘천지 속의 용궁’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상담 및 심리치료》, 19(1) : p177.

41) 이윤기(역)(2000) : 앞의 책, p131.

4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앞의 책, p473.

해서 개인이 가족의 좁은 영역에서 인간 사회의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쉽게 겪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⁴³⁾ 일곱 아들이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과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만난다.

결국 낳고, 키워준 옥녀부인에 대한 모성적인 의존상태를 벗어나게 해 준 것은 아버지, 칠성님이다. 아버지는 일곱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 어떤 움직임의 힘이며, 신성을 얻기 까지 일곱 아들이 견뎌내야 하는 통과의례를 겪도록 한 인도자이기도 하다.

용에 의하면 영웅은 인간적이기는 하나 초자연의 경계에 까지 올라간 인간 존재(반신성)라고 한다.⁴⁴⁾ 비범한 출생을 한 일곱 아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어린이’의 숙명은 자기의 생성 시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사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비범한 출생’은 일종의 생성의 체험을 묘사하려는 것이며, 이 주제는 최고의 선에 이르기까지 겪게 될 험한 고난을 묘사 한다고 하였다.⁴⁵⁾ 일곱 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사건들은 이들이 자기를 실현하는 길에서 겪어야 할 숙명적인 조건들이다.

5. 계모의 계략으로 인한 일곱 아들의 시련

옥녀부인은 일곱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옥녀부인은 바지 일곱 개, 옷옷 일곱 개, 버선과 신발 일곱 개를 마련하여 일곱 아들을 떠나보낸다. 어머니, 옥녀부인은 모성애 그 자체이다. 천상으로 간 일곱 아들은 또 다른 어머니, 계모와 대면한다. 그들의 관계는 모자관계에 놓이긴 했지만 서로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천상가족의 미묘한 갈등을 보여준다.⁴⁶⁾ 칠성님은 옥녀부인과 그의 일곱 아들을 소박 주고, 버렸던 비정한 남편, 아버지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 한다. 이런 아버지와 지배적인 계모의 영향력에 있는 일곱 아들은 당연히 시련을 겪게 되어있다.

남편이 일곱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자 계모는 남편의 애정상실, 후처로서의

43)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5) : 용 기본저작집 7권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pp75-76.

44)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55.

45)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55.

46) 홍나래(1997) : 앞의 책, p49.

자기 존재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계모의 피병, 문복장이의 매수, 부친의 문복, 일곱 아들의 창자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일곱 아들의 살해기도로 이어진다.

계모의 주제는 영웅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어머니”의 주제와 연결된다. 영웅은 자주 버려지고 그래서 자주 양부모에게 양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영웅은 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좋은 예가 헤라클레스이다.⁴⁷⁾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자애로운 어머니, 알크메네와 그를 박해하는 어머니, 헤라인데 그는 헤라의 젖을 먹음으로써 불사의 삶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어머니를 극복하고, 그를 통해서 불멸성을 얻은 것으로, 박해자 헤라는 엄격한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⁴⁸⁾

계모를 주제로 한 만담에서도 자녀들은 계모에 의해 구박, 학대, 고충을 겪게 된다. 계모는 악마스런 적대적인 엄마, 의붓자식들에게 있어 이기적인 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그들을 죽일 준비도 되어있고,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여성의 인물들 중 마녀로 등극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신화에서 모성상은 의식성을 획득한 정신성을 보호하는 모성적 역할을 하지만, 영웅이 모성상을 극복할 정도로 성장하면 오히려 모성의 파괴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그 파괴적 성향은 영웅을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파괴적인 성향은 정신의 고유한 목적적인 활동과 부합되는 것이다.⁵⁰⁾ 융(2006)은,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가장 최고의 목표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위협하고 위협적인 무시무시한 어머니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 원형의 적대성은 결국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최고의 능력을 갖도록 자극하려는 바로 어머니인 자연(mother natura)의 술수가 아니었는지 물을 정도로 인상적이라 하였다.⁵¹⁾

모성원형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 ; 상식적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47)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융 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256.

48)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218, p225.

49) Hans Biedermann(translated by James Hulbert)(1994) : *Dictionary of Symbolism: Cultural Icons And The Meanings Behind Them*, Plume Books, New York, p325.

50) 이유경(2002) : 《세계의 영웅신화: 영웅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동방 미디어, 서울, p371.

51)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225.

정신적인 숭고함;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 변용의 터고 재생의 터다.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며,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⁵²⁾

일곱 아들이 가야 할 무의식의 목적성 때문에, 부정적 모성 원형인 계모는 일곱 아들과 함께 살기 보다는,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일곱 아들의 정신적인 탄생, 신적인 탄생을 위해서 계모에 의한 시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부정적 모성원형은 일곱 아들의 신성한 운명을 빗어내는 자연인 것이다.

6. 죽은 모친이 환생한 동물의 희생 : 사슴

울화병이 난 계모는 문복자를 매수하여 일곱 아들의 창자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며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락을 꾸민다. 계모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한 일곱 아들은 계모에 대해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고 효(孝)를 행한다. 이런 일곱 아들의 죽음 앞에 옥녀부인이 사슴으로 환생하여 칠성님의 길을 막는다.

산짐승의 희생은 중요한 신화소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전쟁과 징벌을 제외하면 제물과 약물을 얻기 위함이다. 집단의 삶을 위해 한 개인을 제물로 바쳤던 <지네 장터>나, 부모의 병을 고치려고 아들을 죽여 약으로 쓰려 했던 <동자삼> 이야기도 전해진다. 모두 무고하게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 동물이나 산삼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⁵³⁾ <동자삼>은 효행담으로 부모를 위해 자식까지도 죽이려 한 효성에 신이 감동하여 산삼을 보냈다고 한다.

칠성풀이에서는 죽어야 할 일곱 아들의 생모 옥녀부인이 사슴으로 환생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된다.⁵⁴⁾ 아이들의 최초의 세계인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 안에 타고난 자연의 어머니이자 심혼의 어머니! 우리가 아이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의 상을 나르는 추진자라고 읊

52)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p202-203.

53) 서대석(2002)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pp351-352.

54) 이규창이 채록한 “칠성굿 무가”에서는 일곱 아들의 생모가 금사슴으로 환생하여 배를 갈라 자신의 간 일곱 개를 꺼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규창(1994) : 《전라민속논고》, 집문당, 서울, p363.

은 말한다.⁵⁵⁾

옥녀부인은 사슴으로 환생한다. 동명왕 신화에서 사슴은 지상과 천상을 매개하는 우주동물로 상징되어 있으며, 주술의 효험을 보장하는 영적인 동물이며, 주술사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 천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제물로 해석된다.⁵⁶⁾ 폰프란츠(1996)는 사슴은 결정적 사건, 즉 재생(rejuvenation) 또는 그 너머(beyond),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무의식적 요소로 상징화 된다고 하였다. Mercurius나 Hermes처럼 사슴은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정신의 안내자로 보여 진다고 한다. 사슴은 심리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무의식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이끌어내는 무의식의 내용이다.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직관적인 지혜처럼 사슴은 강력한 매력을 발휘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image)들로 부여하는 알 수 없는 정신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⁵⁷⁾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옥녀부인이 환생한 사슴은, 일곱 아들을 상징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이것은 산속에 은둔하여 복귀를 준비하는 입사식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엘리아드는 전통사회에서 성년식은 본질적으로 신참자의 상징적 죽음과 재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죽음’을 의미하는 입사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가한다거나 상징적인 수족절단, 제의적 매장, 혹은 입문식 이전의 몽매했던 존재를 망각하고 이와 더불어 모국어를 망각(물론 가정이지만) 하는 것, 숲 속이나 외딴 오두막에 격리시키는 것 등 죽음에 대한 시련을 경험하게 한다.⁵⁸⁾

일곱 아들이 산에서 사라지는 것 역시, 정신적 재탄생을 위한 상징적인 죽음이다. 어머니-이마고 안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보배’가 숨어져 있다고 융(2006)⁵⁹⁾은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자연계의 비밀에 통달하고 있는 사슴은 일곱 아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보배인 것이다.

55)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15.

56)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앞의 책, p393.

57)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119.

58) M Eliade(1985) :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역)(1991) :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파주, p38.

59)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323.

7. 계모가 벌을 받고 두더지가 됨

계모의 계략이 밝혀지고, 산중에서 사라졌던 일곱 아들이 집에 도착한다. 아버지를 다시 찾은 일곱 아들에게, 칠성님은 ‘너희가 나의 자식이라면 나가서 큰 나막신을 신고 흔적 없이 집으로 들어와 보라.’ 라는 과제를 내어 놓는다. 그 과제를 통과한 일곱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이고, 너희들은 귀신이다, 귀신이 해를 끼치려고 한다.’ 라고 말한다. 일곱 아들이 신성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멀고, 어렵다. 이때 일곱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모아 확인하자는 제안을 한다.

피검사 결과 칠성님은 일곱 아들이 신이한 능력을 가진 자신의 친 아들임을 인정하고 비로소 그들을 받아들인다. 서대석(2002)은 칠성풀이에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제석본풀이에서도 일치한다고 한다.⁶⁰⁾ 그는 제석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은 단국신화, 주몽신화 등의 국조신화와 일치한다고 하면서, 부계는 천신이고 모계는 지모신(地母神)이며, 부와 모의 결합으로 새로운 신격이 탄생하는 내용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⁶¹⁾

그리고 나서 칠성님은 계모의 계략에 대한 응징으로 계모를 두더지로 변화게 한다. 두더지는 집쥐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짐승인데, 야간에는 가끔 땅 위에 나타날 뿐 대부분의 생활을 지하에서 영위한다.⁶²⁾ 이렇게 땅속에서 생활하는 두더지는 지하에 속하는 존재로 암흑의 신들을 나타내며, 인간혐오의 상징이라고 한다.⁶³⁾ 서양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신(그리스신화, 의학과 치료의 신) 원래 Rndra(인도 궁수의 신/치료의 신)와 같은 두더지의 신이었다고 한다. 두더지는 지구와 죽음의 신비를 푸는 사람을 상징했다고 한다. 음지 동물의 상징인 두더지는 신체적인 면에서 영적인 측면으로, 영혼을 음침한 지하 미궁으로 인도하고, 영혼의 걱정과 불안을 치료해주는 숙련자의 의미로 이행/ 변천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⁶⁴⁾

구전 민담 중에 “불효하다가 두더지가 된 며느리”가 있다.

누만 과부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는데, 고기를 좋아하였다. 하루는 아들이

60) 서대석(2002) : 앞의 책, p350.

61) 서대석(1980) :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서울, p107.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 《한국 민속문화 대 백과사전》, 서울, p397.

63) 이윤기(역)(2000) : 앞의 책, p215.

64) Chevalier J, Gheerbrant A(1994) : 앞의 책, p663.

장사하러 집을 떠나게 되어,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돈을 주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기는 자기가 먹고, 눈먼 시어머니에게는 지렁이를 볶아 주었다. 아들이 오자, 어머니는 그 동안 며느리가 고기를 사다 주어 잘 먹었다면 서 싸 두었던 고기를 아들에게 주었다. 지렁이인 것을 안 아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별안간 번개가 치면서 며느리에게 벼락이 내렸다. 벼락을 맞은 며느리는 두더지가 되었다. 두더지는 하늘을 못 보고 지렁이만 잡아먹고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더지는 불효한 며느리의 변신으로, 죄 많은 존재임을 암시한다. 무속신화에서 두더지는 하늘을 보면 눈이 멀어 죽는데, 죄의 대가라고 한다. 칠성풀이에서 두더지는 계모의 화신으로서 죄 값을 상징하고 있다.⁶⁵⁾

용(2006)⁶⁶⁾에 의하면 영웅은 자주 두 어머니를 갖는다고 한다. 인간은 평범하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영웅. 즉 그는 일종의 반신(半神)적인 존재가 된다. 두 어머니 중에는 이중(二重)의 출생에 대한 생각을 시사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실패하는 인간적인 어머니이지만, 또 다른 어머니는 상징적인 어머니로 신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녀는 또한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원형적 관념이 어떤 특정한 주변 인물들에게 투사된 경우인데 그 결과는 대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재탄생의 상징은 계모, 혹은 시어머니이며 물론 무의식적으로 투사된다.

일곱 아들의 이러한 시련, 고통, 죽음 그리고 재탄생으로, 그들은 천상적 존재인 칠성님의 신이한 능력을 물려받은 일곱 아들로 인정받는다. 즉 신이 아들을 낳은 자이며, 더 나아가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 심리학적 언어로 말하자면 핵심적인 원형, 즉 신상(神像)이 새로워졌다는 것(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며 의식에 인지될 수 있게 육화(inkarniert)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용, 2006).⁶⁷⁾ 이렇게 옥녀부인, 계모로 상징되는 대극의 모성상은 일곱 아들의 정신적인 재탄생, 자기를 실현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65)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앞의 책, p167.

66)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p256-257.

67)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260.

8. 일곱 아들이 지상으로 하강해서 죽은 모친을 꽃으로 살려냄

계모가 응징되고, 일곱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상으로 하강해서 죽은 어머니, 옥녀부인을 살려낸다. 일곱 아들이 어머니의 시체에 꽃을 꽃으니 뼈가 돌아나고, 살이 돌아나고, 숨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 과정은 일곱 아들이 신격을 얻기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꽃과 개화는 젊음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이는 겨울의 종결, 죽음의 극복, 승리로 표현되어지는 활력의 상징이다.⁶⁸⁾ 고대 근동문화에서도 꽃밭은 신화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룩한 도시 딜문’ 신화에서 지하수의 신 엔키의 꽃밭에는 아프게도, 아름답기도 하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등 여러 종류의 꽃, 풀이 있다고 한다.⁶⁹⁾

제주도의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 꽃밭으로 가 도환생꽃을 얻어와 남종과 남편을 살려낸다. 또한 ‘문전본풀이’에서는 아들 녹디생인이 죽은 어머니를 위해 서천 꽃밭으로 가서 도환생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려냈다.⁷⁰⁾

큰곳내의 신화에 나오는 서천꽃밭은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키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생명꽃’이 피어있는 신화적 생명 공간이다. 이곳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두 문제 생사(生死)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큰 곳에 나오는 본풀이들, 곧 신화들은 인간의 탄생, 죽음 그리고 재생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⁷¹⁾ 또한 바리공주가 무장승과 함께 살던 약수터 근처 뒷동산에도 꽃밭이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꽃들이 피어있었다. 바리공주는 이 생명꽃으로 부모를 죽음에서 살려낸다.

이와 같이 ‘거룩한 도시 딜문’ 신화, 무속신화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바리공주’에서 등장하는 모든 꽃밭은 아프기도 또는 죽기도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신화소이다.

일곱 아들이 ‘생명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려냄으로써, 일곱 아들은 신성을

68) Hans Biedermann(translated by James Hulbert)(1994) : 앞의 책, p135.

69) 이수자(2004) :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서울, pp332-333.

70) 조철수(2003) :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 신화의 비밀》, 김영사, 서울, pp306-307.

71) 이수자(2004) : 앞의 책, pp331-334.

획득하는 마지막 통과의를 치른 것이다. 이부영(2002)⁷²⁾은 영웅소녀 바리공주를 숙명적인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나온 치유자 원형(healer archetype)에 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 상처 입은 자, 죽음을 겪고 극복한 자만이 삶을 치료할 수 있다는 원시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용(2001)⁷³⁾은 치유란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고통, 죽음, 그리고 재생의 자기실현의 과정을 거친, 영웅소녀 일곱 아들 역시 신성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온 치유자의 원형인 것이다.

9. 칠성신이 된 일곱 아들

어머니를 살려낸 일곱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천하궁으로 올라간다. 칠성님은 일곱 아들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칠성으로 가겠다고 한다. 비범한 탄생, 아버지에게 버림받음, 계모에 의한 시련, 동물의 도움, 생명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고, 고통과 죽음을 극복한 일곱 아들! 그들은 새로운 정신의 탄생과 함께 하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성성을 얻는다. 이렇게 일곱 아들은 자손만덕, 장애와 어려움을 멀리하고, 업의 장애 없애주고, 구하는 바 모두 얻게 하고, 온갖 손해 없애주고, 복과 덕을 갖게 하고, 인간수명을 늘려주는⁷⁴⁾ 칠성신이 된다. 즉, 죽고, 부활하였기에 다른 이를 고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여기에는 세상의 권세, 명예, 경제적 안락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무의식, 하늘의 뜻을 좇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복두칠성, 칠성신을 하느님으로 상징하는 별로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복두칠성 관련 기록들이 약 21건이 발견된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태종 16년(1416) 正月, 王 이 대사헌 李原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략) “古書에 있는 천문의 칭호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 무슨 君이나 帝니 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이 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敬拜

72) 이부영(2002) : 앞의 책, p261.

73)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1) : 용 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p23.

74) 김수년(2007) : 동양천문학상 복두칠성의 의의와 약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6-88.

75) 김수년(2007) : 앞의 책, pp87-88.

드릴 것은 北斗七星뿐이다.”

또한 서산대사가 지은 ‘회심곡’ 중 영조52년(1776) 판본의 내용을 보면 북두칠성이 칠성신으로 대중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뉘덕으로 생겼는가/하느님의 은덕으로/아버님전 뼈를 타고/어머님전 살을 타고/칠성님께 명을 타고/제석님께 복을 타고/석가여래 제도 하여/ 일생일생 탄생하니…

하늘의 많은 별자리 중에서, 우리 민족은 왜 일곱 개의 별, 북두칠성, 칠성신을 숭배 했을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칠성제의는 ‘칠성’이라는 숫자의 날과 관련이 깊다. 민속자료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여천군(麗川郡) 나로도(羅老島) 박신운(朴信雲) 무녀(巫女)(63세)는 안마당 장독대에 높이 75cm로 대나무를 세우고 상부를 부채살처럼 쪼개서 편 정상에 그릇을 놓고 묶어 놓았는데 뚜껑이 덮여 있었다. 매월 7일·17일·27일 아침에 주부가 목욕하고 정화수를 길어다 부으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 이것을 칠성이라 하고 북두칠성님께 비는 것이라 한다.

충청북도에서 칠성(七星)은 북두칠성의 신으로 가문의 번영과 만사형통·풍년을 기원해서 모신다. 제주는 집안의 부인으로 주로 할머니들이다. 보통 칠성은 뒤뜰에 모시지만 흔히 장독대에 위치한다. 제일은 칠석날 밤이고 제장(祭場)에 돛자리를 깔고 백설기의 떡시루와 정화수 한 그릇을 놓으며 사발에 백미를 떠 놓기도 한다. 그리고 초불을 밝히고 제주가 동서남북 사방에 4번 또는 7번씩 절을 하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축원하고 식구 수대로 소지(燒紙)를 올린다.⁷⁶⁾

또한 우리 민족은 빛이 1→3(삼원색)→7(일곱 무지개)로 전개되고 우리 몸이 1→3(삼혼三魂)→7(칠백七魄, 7개 차크라)로 짜여 있듯이, 우주도 1(우주본체)→3(자미원, 태미원, 천시원)→7(북두칠성 또는 4×7=28수)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고, 이런 인식의 바탕 때문에 북두칠성신앙이 민간에서 면면히 광범하게 성행할 수 있었다. 즉 북두칠성을 천제(天帝)를 대변하는 신격의 대행자(중심별)로 보았고, 하느님의 자손인 천손민족으로서 죽어서도 원래

76) 한국민속대사전 편찬위원회(2001) : 《한국민속대사전》, 누리미디어, 서울, p885.

나왔던 천신(天神)의 고향인 북두칠성으로 되돌아간다고 믿었던 것이다.⁷⁷⁾

동명왕 신화에서 우리는 아버지 주몽이 집을 나갈 때 남기고 간 말에 따라 일곱 모가 난 돌 아래에서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낸다. 가락국 신화에서의 수로왕은 구지봉에서부터 산의 줄기가 일곱 번 솟아오른 봉황대에 가서 가야의 기틀을 세우고, 그의 열 명의 왕자 중에서 일곱이 탈속 성도한다. 또한 혁거세는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지 61년 만에 하늘에 오른 후, 7일째 되는 날에 토막난 유해로 땅에 떨어진다. 이들 신화에서 일곱은 모두 신성한 숫자로 나타나는데, 영웅을 시험하는 숫자로, 국가의 기틀을 잡는 숫자로, 성자의 수로 천체의 형벌이 내려지는 시간의 수로서 신성함을 보여준다.⁷⁸⁾

서양에서, 중앙 멕시코의 ‘연기나는 거울’로 흑요석의 검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 밤하늘의 신, 아즈텍의 용사, 티케릴리포카는 신성한 별의 신으로 기록되고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 거울’에는 말굽 형상의 물체에서 <7개의 북두칠성>의 표식을 담고 있다. 이 신비한 마술과도 같은 검은 거울의 위력은 7개의 북두칠성에서 뻗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북쪽의 별들은 사만이 세상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고 한다.⁷⁹⁾

또한 일곱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상징이었다. 이는 완전한 원의 역동적 완벽성을 상징한다. 달의 각 모습(phase)은 칠일간 지속되고 달의 네 개의 모습(7×4)은 이 주기를 완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산드리아의 philo 처음 일곱 개의 숫자의 합(1+2+3+4+5+6+7)이 28과 같음을 관찰했다. 일곱은 한 주기가 완성된 후 새로운 출발과 긍정적인 재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은 3과 4*의 합으로써 인간의 전체성(남성과 여성의 영적인 원리를 결합한), 전체로서의 우주, 실현된 창조 및 자연적 성장의 표시이다. 즉 일곱은 완벽한 말, 그림으로써 최초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다.⁸⁰⁾

또한 연금술에서도 신비의 숫자 7이 자주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증류는 일

77) 정우영(2005) : “제천봉의 칠성신앙 암공지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연구》, 경기향토사학, 제10집, p158.

7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앞의 책, p581.

79) 배영희(1997) : 《세계 민속 문화와 역학 탐구 I》, 민속원, 서울, pp312-313.

80) Chevalier J, Gheerbrant A(1994) : 앞의 책, p859.

*일곱은 하늘과 혼을 의미하는 3과 대지와 육체를 의미하는 4를 더한 수이다(한국문화상징사전 II, 1995).

곱 번 행해지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⁸¹⁾ 용(2004)⁸²⁾은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에서 '7'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과 비슷한 계시적인 것의 손에 나타나는 일곱 개의 별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계시록 1장 13절과 2장 1절). 일곱 개의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구의 일곱 천사와 하느님의 일곱 정령을 나타낸다. 7이라는 수의 이러한 역사적으로 함축된 암시는 일곱 정령들의 태고적 집합인데, 이는 연금술의 일곱 금속으로 넘어 간다고 언급하였다. 용은 자신이 발견한 무의식과 자기실현의 상징을 연금술사의 물질변화 속에서 똑같이 발견한 것이다.

용(2003)에 의하면 사람의 심혼 속에는 신화를 생성시키는 모든 상들이 들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심혼의 기관은 원형이며, 잘 알려진 원형의 다른 표현은 신화와 민담이라 하였다.⁸³⁾ 용은 원형들로 이루어진 무의식 심층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는데, 그 가운데의 핵심적인 원형이 자기원형이라고 하였다. 자기원형은 그 개인의 모든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체의 전체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자기원형은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개체로 하여금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 살게 하는 잠재적 능력이다. 다른 모든 원형과 같이 자기원형도 강력한 에너지와 누미노제(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⁸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실현을 하려는 충동과 압박은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비한 힘, 치유자의 그 어떤 신적인 상(image)의 원형을 일곱 개의 별, 칠성신에게 투사한 것이다. 무속신화 “칠성풀이”는 일곱 아들이 겪어야 할 성인화과정(Initiation), 즉 고통·죽음, 재생의 세 단계를 거치며 신성을 획득하는 개성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나가는 말

7개의 별, 북두칠성을 향해 개인적 소망을 기도했던 나의 어린 시절! 이 체험과 기억은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

81) 오석진(역)(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 미디어, 서울, p156.

82)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204.

83)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p108-110.

84) 이부영(2005) : “노자와 용(9)”, 《길》, 6(1) : pp4-6.

하게 했다.

2009년 가을, 나는 한국용연구원의 전문가 과정에 입문한 뒤 무속신화 “칠성풀이”를 책을 통해 만나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얼마 뒤에 꿈을 꾸었다.

〈2009. 09. 27〉

밝은 느낌, 칠성신이 오고…

그 칠성신은 젊은 남자 7명,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삼국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건강해 보였다. 칠성신은 반쯤 앉거나, 서있거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일곱 명은 함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젊고, 개성 있고, 고귀함을 지닌 나의 아니무스들인 칠성신을 만나면서, 나는 설레임과 함께 외경스러움을 느꼈다. 분석과정을 통해, 나는 개성 있는 일곱 아니무스들의 적절한 배열, 7위 일체, 전체상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했다. 즉 나의 내면의 심혼, 아니무스를 매개로 한 자기(Self)와의 만남인 것이다.

용(2003)에 의하면 신화는 스스로 나타내며, 한 종족의 신화는 그들의 살아 있는 종교라 하였다.⁸⁵⁾ 나의 어린 시절, 북두칠성을 향해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했던 그 종교적 신념!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작용한 이 마음은 본래부터 간직되어 있던 자연스런 마음인 것이다. 용(2012)은 자연스런 마음이란 본성에서 유래되며 책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마치 대지의 샘처럼 솟아나며 본성 고유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였다.⁸⁶⁾ 이러한 원형은 사람들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자 하였으며 아주 드문 방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끔 배려하는 심혼적 생명력이며, 늘 보호자이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자 라고 하였다.⁸⁷⁾

일곱 아들의 비범한 탄생, 버림받은 특별한 성장과정, 시련과 죽음을 극복하

85)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41.

86) 아니엘라 야훼(이부영 역)(2012):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74.

87) Jung CG(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44.

고, 새로운 정신의 탄생으로 어머니를 살려내고, 신성한 지위를 획득한 칠성신/칠성신은 효와 인내, 자기희생의 용기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있는 영웅 원형이다.

이부영(2002)은 집단무의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이 배열될 때 집단 전체에 관여하고 집단적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럴 때 자기 원형의 상징은 한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성원,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⁸⁸⁾

그러므로 한국인의 자기실현의 상징인 칠성신은 우리 민족의 자연스런 마음 속에 숨겨진 신성한 자기원형의 상징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투사한 치유자의 원형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반짝이는 밤하늘도, 영혼도 잃어버렸다. 융(1959)이 프리만과의 면담(대면 : C.G.Jung과의 면담)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그 자신의 말살을 영원히 참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였고, 허무와 의미상실 속에 완전히 원자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인간은 의미 없는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⁹⁾ 즉 인간은 자아의식을 넘어, 깊은 내면적인 존재를 찾으려는 움직임, 인간 정신의 전체성을 시도하려는 본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 일곱 아들이 가야했던 그 길은 나, 너,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치유자의 원형과 대면해야 하는, 대극을 이어주는 구불구불한 길, 각자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중(2008) : “한국 민담 ‘바늘상자 속에 넣어둔 눈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한국분석심리학회, 23(1).
- 김만태(2007) : “부적에 나타난 복두칠성의 조형성 연구”,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제115집.

88) 이부영(2002) : 앞의 책, p235.

89) McGuire W, Hull RKC(1977) : *C.G.Jung Speaking Interview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 김수년(2007) : 동양전문학상 복두칠성의 의의와 약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열규(외)(1998) : 《한국의 무속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서울.
- 김영일(2005) : 《한국 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 출판사, 서울.
- 김용덕(2004) : 《한국 민속 문화 대사전 상권》, 도서출판 창솔, 서울.
- 김정택(2006) : “백두산 민담 ‘천지 속의 용궁’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상담 및 심리 치료》, 한국심리학회, 19(1).
- 김일권(1999) : “도불의 점성 사상과 점복신앙”, 《한국민속학보》, 민속원, 10집, 서울.
-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심상영 역)(2007) : 《응심리학과 고양이》,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박광순(역)(2000) : 《신비의 나라, 중국의 신화와 전설》, 넥서스, 서울.
- 배영희(1997) : 《세계 민속 문화와 역학 탐구 I》, 민속원, 서울.
- 서대석(1980) :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서울.
- _____ (2002)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 _____ (2004) :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 아니엘라 야훼(이부영 역)(2012) :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아서 코트렐(도서출판 까치 편집부 역)(2002) : 《그림으로 보는 세계 신화 사전》, 도서출판 까치, 서울.
- 양민중(역)(2003) : 《알타이 이야기》, 정신세계사, 서울.
- 오석진(역)(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 미디어, 서울.
- 윤, C.G.(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1) : 용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3) : 용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용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용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용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5) : 용기본저작집 7권,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6) : 용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 이도희, 이부영(1993) :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심성연구》, 한국분석심리학회, 8(1,2).
-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 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서울.

- _____ (2005) : “노자와 용(9)”, 《길》, 한국웅연구원, 6(1)
- _____ (2011) :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서울.
- 이수자(2004) :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서울.
- 이안나(역)(2007) :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서울.
- 이유경(2002) : 《세계의 영웅신화 : 영웅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동방 미디어, 서울.
- _____ (2008) :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 이윤기(역)(2000)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 서울.
- 정우영(2005) : “제천봉의 칠성신앙 암공지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연구》, 경기향토사학, 제10집.
- 조봉제(1975) : 《세계의 민담》, 아카데미, 서울.
- 조성재(2005) : 《무속에 살아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서울.
- 조철수(2003) :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 신화의 비밀》, 김영사,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1》, 동아출판사,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2》, 동아출판사, 서울.
- 한국민속대사전 편찬위원회(2001) : 《한국민속대사전》, 누리미디어,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 《한국 민속문화 대 백과사전》, 서울.
- 홍나래(1997)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evalier J, Gheerbrant A(1994)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Hans Biedermann(Translated by James Hulbert)(1994) : *Dictionary of Symbolism: Cultural Icons And The Meanings Behind Them*, Plume Books, New York.
- Marie-Louise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nmbhara Publications. Inc, Boulder.
- McGuire W, Hull RKC(1977) : *C.G.Jung Speaking Interview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 M Eliade(1985) :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역)(1991) :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파주.

표 1. <칠성풀이> 자료 일람

| 번호 | 무가명칭 | 전승지역 | 조사자 | 발표지 | 발표연도 |
|-------|---------|---------|-----------------|-------------|------|
| (1) | 살풀이 | 함남 함흥 | 임석재 · 장주근 | 관북지방무가(追加) | 1966 |
| (2) | 성신굿 | 평남 평양 | 임석재 · 장주근 | 관서지방무가 | 1966 |
| (3) | 칠성굿 | 충남 부여 | 김태곤 | 한국무가집1 | 1971 |
| (4) | 칠성풀이(Ⅰ) | 전북 줄포 | 임석재 | 줄포무악 | 1970 |
| (5) | 칠성풀이(Ⅱ) | 전북 줄포 | 임석재 | 줄포무악 | 1970 |
| (6) | 칠성풀이 | 전북 전주 | 최길성 |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1971 |
| (7) | 칠성마지석 | 전북 전주 | 최길성 |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1971 |
| (8) | 칠성풀이 | 전북 고창 | 김태곤 | 한국무가집3 | 1978 |
| (9) | 칠성굿 | 전북 순창 | 김태곤 | 한국무가집2 | 1976 |
| (10) | 칠성풀이 | 전남 장성 | 최래옥 · 김균태 | 한국구비문학대계6-8 | 1986 |
| (11) | 문전본풀이 | 제주도 서귀포 | 아카마쓰지조 · 아카바다카시 | 한국무속의 연구 상 | 1937 |
| (12) | 문전본 | 제주도 제주시 | 현용준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 1980 |
| (13) | 남선비 | 제주도 제주시 | 현용준 | 제주도의 신화 | 1976 |
| (14) | 문전본 | 제주도 서귀읍 |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1991 |
| (15) | 문전본 | 제주도 표선면 |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1991 |
| (16) | 문전본 | 제주도 안덕면 |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1991 |

표 2. <칠성풀이> 서사단락소의 지역별 대비

| 관북지방 | 관서지방 | 호남지방 | 제주도 | 비 고 |
|---------|------------------------|--|--------------------------------------|------------------|
| 혼례 | 혼례 부친의 벼슬 | 혼례 기자치성 태몽 | 서두요약 | 부모의 혼례 |
| 출생 | 출생 | 출생 | | 탄생 |
| 모친의 죽음 | 모친의 죽음 | 모친의 소박 | 부친의 출타 | 부모의 분리 |
| 재혼 | 재혼 | 재혼 | 부친의 함계 | 계모 입가 |
| 계모의 출산 | 계모의 출산 | 기아 · 구출양육 아들의 수육 부친의 탐색 부친 방문 친자확인 | 남편의 탐색 모친의 피살 계모의 변장 부친의 귀환 | |
| 피병 | 피병 | 피병 | 피병 | 계모의 음모 |
| 복술가의 매수 | 복술가의 매수 | 복술가의 매수 | 복술가의 매수 | |
| 문복 | 문복 | 문복 | 문복 | 부친의 문복 |
| 아들살해 기도 | 아들살해 기도 | 아들살해 기도 | 아들살해 기도 | 아들살해 기도 |
| 아들의 원정 | | | 모친의 현몽 | |
| 음모의 확인 | 집승의 희생 음모의 확인 급제 | 집승의 희생 음모의 확인 잔치 | 집승의 희생 음모의 확인 | 집승의 희생 음모의 확인 |
| 계모의 징치 | 계모의 징치 | 피병의 재발 신의 심판 | 계모의 징치 모친의 회생 신성의 획득 | 계모의 징치 신성의 획득 |

Shim-Sŏng Yŏn-Gu 2015, 30 : 2

<ABSTRACT>

**An Interpretation to the Shamanic Myth *Chilseongpul-i* based
on Jung's Analytical Psychology**

Young Hee Kim *

Chilseongpul-i is a Korean shamanic myth in which the life story full of hardships of seven sons is told, until they will take up the sacredness of *Chilseong god*.

The seven sons, who were born from *Chilseongnim* and his wife *Okneobuin*, are abandoned by their father, *Chilseongnim*. But sometime later they are born with new characters after going through a special growth process of suffering, dying, and rebirth. They finally recover the sacred position to save their mother.

As considered by the analytical psychology, the fact that the seven sons became *Chilseong* gods shows an individuation process of the heroic mythology. The individuation process might be regarded as a symbol of Self-archetype of Koreans. Self-archetype functions as a healing which gets one's split heart and mind together. An imago dei of healers should be projected upon the seven gods by ancestors.

KEY WORDS : *Chilseongpul-i* · *Chilseong God* · The individuation process · Self-archetype.

*Professor at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Kyonggi University